

추운날씨 자비온정 쏟아져 훈훈한 감동

호남지역 연말 앞두고 쌀 전달 등 자비나눔행 활발

최근 호남지역의 사찰에서 독거노인을 비롯한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비의 온정이 전달돼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11월 14일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자비의 쌀'을 서귀지역 농성1동, 양3동, 유덕동, 광천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에 전달했다. 특히 이날 전달한 2000kg의 자비의 쌀은 정부 지원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지원자나 독거어르신들 100여 세대에 전달됐다.

김희남 신도회 고문은 "처음에는 매년 김치를 담가 700~800세대에 전달했으나, 최근 몇 해 전 부터는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쌀을 전달해왔다. 신도들이 '자비의 쌀'을 마련해 지금까지 8,000kg의 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지난 1988년 개원 이래 매년 2회씩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자비의 쌀 이외에도 매년 결손가정의 청소년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대해노인복지센터(센터장 무진, 법림사 주지)도 11월 9일 광주남초등학교 강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잔치 '자비나눔 민발공양'을 개최했다. 동구지역 지역 노인 3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문화공연과 위문공연, 점심, 연말선물 등이 제공돼 노인들에게 큰 호응

을 얻었다.

"민발공양"이란 부처님 생전 발우에 밥을 수북하게 담아 대중에게 공양을 베푸는 데서 유래된 자비나눔 실천수행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어르신에게 부처님께 공양하듯 준비한 음식과 위문 공연, 연말선물 등을 제공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자비의쌀 전달 대해노인복지센터, 자비나눔 민발공양 탐사 나무누리, 자비연탄 전달 등 다채

또한 지난 1년간 복지센터를 통해 자원봉사를 한 봉사자에 대해 국회의원 표창, 동구청장 표창, 교구본사 대홍사 주지 표창이 수여됐고,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전달됐다.

무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른들을 잘 모시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며, "향후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박주선 국회의원,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해 해남 대홍사 스님들과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부 문화공연과 시상식, 점심공양이 제공됐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11월 14일 광천동 주민자치센터에 자비의 쌀 2000kg을 전달했다.

한편 대해노인복지센터는 지난 92년 초등학교 장학금 전달과 독거어르신 밀반찬 제공을 시작으로 지난 2008년 법인이 설립되어 지역소외계층에게 9988 희망만들기, 독거노인 밀반찬 지원, 미용봉사, 경로당 점심 밀반찬 지원, 독거가족 생필품 및 쌀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 201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방문요양 최우수기관, 주간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 진안 마인산 탐사(주지 진성)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비의 연탄과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탐사 나무누리 봉사단은 11월 9일 진안군 관내 어려운 이웃 11가

구에 연탄 3300장을 직접 전달했다. 이날 자비의 연탄 배달에는 진성 스님, 정혜 스님, 진송 스님, 나무누리 봉사회와 이쁜손 어린이 봉사단, 진안군 자원봉사 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번 자비의 연탄 전달은 탐사의 천지탑 소원바위에 참배객들과 관광객들이 올려놓은 동전을 수거한 기금으로 마련됐다. 탐사의 소원바위에 올려놓은 동전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탐사 나무누리 봉사단은 지난 5월에도 이 동전을 모아 소아환우 어린이에게 치료비로 전달된바 있다.

안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동구불교협의회 무등산 산신제 봉행

증심사 · 원효사 등에서 3백여 대중 참여, 광주시민 평안 기원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만호)는 11월 8일 무등산 장불재(900m)에서 '제8회 무등산 산신제'를 봉행하고 광주시민들의 평안을 기원했다.

이날 산신제는 광주동구불교협의회 회원스님들과 지형원 광주전남신도회장 등 300여 대중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불교의식에 이어 격려사, 축사, 인사말, 광주영산작법보존회 회원스님들의 기도축원 등이 이어졌다.

만호 스님은 인사말에서 "무등산은 호

남의 진산으로 광주시민들의 영혼의 안식처"라며 "최근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이 잘 보존되고 후손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신제는 지난 2006년부터 동구불교협의회 회원사찰의 노력으로 시작돼 2009년부터 동구불교협의회가 연합해 실시해오고 있다. 무등산에는 광주지역의 대표 사찰인 증심사, 원효사, 약사암, 문빈정사 등이 있다.

안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강진 옴천사, 서산대사 공적비 제막

"서산대사의 호국정신과 충성을 위한 애민정신을 본받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지킨 서산 대사의 호국불교 정신을 기리는 공적비가 세워졌다. 강진 선각총림 옴천사(총무원장 정암)는 11월 10일 서산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공적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다운 스님, 일운 스님을 비롯해 이낙현 국회의원, 강진원 강진군수 등 1000여 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제1부 식전행사에 이어 공적비 제막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정암 스님은 환영사에서 "불교의 큰 스승이요, 한국인의 큰 은인인 서산대사의 공적을 기리고, 국가와 민족이 평안하고 남북이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번 기념비를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산재 무형문화재인 일운 스님을 비롯한 회원스님들의 영산작법도 함께 봉행됐다. 안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충남경찰청불자회, 내포신도시로 청사이전

충남지방경찰청이 1945년 창설 후 68년간 사용해온 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달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가운데 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지방경찰청 불자회(회장 이장영)는 지난 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충남지방경찰청 이전 축하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충남청 경승지단장 웅산 스님, 덕송총림 수덕사 주지 지운스님, 경승 정범스님, 경학스님, 선오스님을 비롯한 수덕사 말사 스님들과 백승업 충남지방경찰청장, 조항민 충남도청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청 경승지단장 웅산 스님은 공무원

들을 경책하는 법문을 하며 "공무원이 자기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잘 신봉하지 않는 것은 도둑과 같다"며 "좋은 곳에 동지를 틀었으니 민중의 지팡이로 민생을 잘 살피는 등불이 되라"고 설했다.

백승업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새로운 100년을 향한 내포신도시 시대를 맞이해 5천여 충남경찰 가족들이 깨끗하고 밝은 사회,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달라"고 인사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 앞서 경승 위촉식과 부처님 이운 법회가 거행됐다. 새로운 경승으로는 수덕사 총무국장 정범 스님과 일락사 주지 경학 스님이 위촉됐다.

노덕현 기자

천안교도소 수용자 교화 특별법회 개최

천안 지역의 불자들이 천안교도소 수용자들의 교화를 위한 특별 법회를 마련했다. 천안교도소는 11월 6일 진안 탐사 진성스님, 대구 해인정사 진송 스님, 광덕사 성우스님, 보광사 류보스님, 태학사 주지 법연스님, 포교사단 충남지역단 포교사와 수용자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특별 법회를 봉행했다.

천안 도광사(주지 지엄)가 주최하고 광덕사 신도회, 성불사 신도회, 천안불교사

암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특별 법회는 1부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인사말, 공로패, 감사패 수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행사는 한국무용과 민요 공연 토트르 가수 강진, 5인조여성 댄스그룹 CMB, 황혁진의 마술 쇼, 몰라요 김도희, 6인조 여성 발리댄스, 5인조 걸그룹 스위트, 장구마을 사물놀이패, 광덕사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선운사 도솔암 범종각 낙성법회



11월 10일 열린 선운사 도솔암 수광전 낙성법회에는 500여 대중이 동참해 정진을 서원했다.

고창 선운사는 11월 10일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원로 재근 스님, 재덕 스님, 범려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도솔암 수광전과 범종각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법만 스님은 "도솔암은 선운사의 삼장 지장도량 중 천장 지장도량에 해당된다. 도솔암을 최고의 지장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솔암 전 대중과 함께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8시까지 16시간동안 8분 정근의 가행정진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법만 스님은 "매주 토요일과 지장재일에는 철야정진도 계속 진행해 도솔암이 엄불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낙성된 수광전은 한때 중무소로 사용됐다. 도솔암 극락보전과 도솔천 내원궁이 협소한 관계로 이번 개축을 통해 만년위패를 봉안하는 기도공간으로 탄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안 보타락가사 해수관세음보살 점안식



10월 27일 열린 태안 보타락가사는 해수관세음보살 점안식에 이어 산사음악회가 진행돼 환희심을 더했다.

서해안 새 관음성지로 주목받는 충남 태안 보타락가사(회주 법진스님)에 대해 해수관세음보살님이 봉안됐다. 보타락가사는 10월 27일 해수관세음보살 점안식 및 범종 타종식에 이어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원혜 스님(동방불교대학 교수·옥천범문대학장) 인례로 거행된 관세음보살 점안식 및 범종 타종식에는 사부대중 15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점안식을 가진 해수관세음보살은 높이 5미터의 대규모 불상이다.

평소에는 범당 내에 모셔져 있다가 사시(巳時)가 되면 대웅전 위로 올라와 서해 바다를 바라보며 모든 중생들의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어주고 고통을 소멸시켜 주는 자비로운 모습을 드러내도록 장치 되었다.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스님은 "불자들은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탐진치모든 번뇌를 없애고 항상 밝은 부처님 지혜를 내도록 발원하고 늘 정진해 맑은 사회를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제)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된 금강경(독송문)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된 천수경(한글/영어)

10,000원 A5/287쪽

*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